

최선에 대하여



G1 방송
원석진 기자



철원 굴삭기 테러 리포트 갈무리(G1 제공)

2022년 3월 철원에서의 이야기이다. 끝물 추위로 팽팽해진 구두코, 그 안에 웅송그린 발끝이 아렸다. 춘천에서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공사 현장엔 초로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머리가 희끗해지기 전부터 밥벌이 전선에서 고락을 함께했을 노란 굴삭기도 보였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도 확연했다. 비난과 증오가 농축된 붉은 래커 자국. 30톤 굴삭기의 노란색 몸통엔 지저분한 욕설과 시뻘건 낙서가 낭자했다. 기계의 혈관은 군데군데 끊겨 기능을 상실했고, 주인은 평정을 잃고 불같이 분노했다. 그는 테러범을 확인했고 내 기사가 범인 검거는 물론 응징까지 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간밤에 테러범이 맘껏 래커를 뿌리고 연료통에 이물

질을 마구 집어넣을 만큼 현장엔 변변한 CCTV 하나 없었다.

설득력 있는 심증은 있었다. 외지에서 장비가 들어오자 철원지역 건설기계 단체에서 '왜 타지역 중장비가 신고도 없이 일을 하느냐'며 텃세를 부렸다는 것이다. 찝찝한 경고를 받고 이를 뒤 날벼락 같은 테러를 당했다는 게 주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단체 임원은 굴삭기 주인을 만나 통성명하고 명함을 건넸을 뿐 테러는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은 범위를 넓혀 CCTV를 수배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럼에도 물증은 좀체 나올 기미가 없었다. 수사팀은 용의선상에 있는 건설기계 단체 임원의 통신기록을 살



간밤의 테러로 엉망이 된 굴삭기



망가진 굴삭기 가리키며 하소연하는 주인



굴삭기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



할 수 있는 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퍼보기 위해 영장도 3차례 신청했지만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전부 반려했다. 수사는 담보 상태,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다.

오죽 갑갑했으면 그토록 기사를 찾았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굴삭기 주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후속 보도를 원했고 수사기관을 질책해 주길 바랐지만 단순히 진척이 더디다는 이유만으로 기사를 쓰긴 어려웠다. 데스크도 같은 판단이었다. 할 수 있는 건 하소연을 들어주고,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어디까지가 기자의 일인가 스스로 물을 때가 많다. 근면한 취재로 수집한 사실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수 골라 기사에 담는 일, 그건 일종의 기본급이다. 우리가 받는 월급엔 타인의 고통과 슬픔, 울분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품삯도 포함돼 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몸에 불이라

도 질러야 기사를 써주고 범인도 잡아주지 않겠냐고 울먹였을 때, 나는 그 알량한 최선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를 달래면서 해법을 궁리했지만 내가 모자란 탓인지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게 그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그에겐 아무 일도 없었다. 몸에 불을 지르지도, 붉은 래커를 들고 어딘가를 쳐들어가지도 않았다. 그걸 불행 중 다행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야밤에 무도하게 누군가의 생계를 끊어버린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어쩌면 혼하디혼한 재물손괴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미제로 남았다. 기자가 범인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 씹쓸하고 뼈아팠다.

잊고 살던 굴삭기가 호출된 곳은 지난 겨울 춘천의 한 호프집이었다. 형, 동생하며 지내기로 한 형사와 함께 한 술자리였다. 지나간 사건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취기가 오를 무렵 형은 철원에 파견돼 열흘간 숙식한 일화를 들려줬다.

경찰서 지원 요청에 ‘원군’ 처럼 달려간 형은 그때까지만 해도 범인 검거에 자신감이 있었다. 어딘가엔 반드시 단서가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철원의 밤은 칠혹 같았고 CCTV 영상은 쓸만한 게 없었다. 동네 철물점과 페인트집을 죄다 찾아가 붉은 래커를 산 사람들을 밀줄 치며 살피봤지만 용의선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별 수확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형은 복귀 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단체 임원을 찾아가 만났다. 누가 대답할까 싶지만 형은 솔직히 한 번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남의 지역에 장비 갖고 들어와 일하는 게 거슬리지 않았냐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냐고 물었다. 역시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허무하게 사건은 종결됐다.

우리 두 사람은 망가진 굴삭기를 알았고, 그를 기억했다. 기자인 나도, 경찰인 형도 그의 전화를 받았다. 몸에 불을 붙이겠다는 말도 똑같이 들었다. 도대체 굴

삭기가 뭐길래, 얼마나 분하길래 분신까지 생각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다시 한번 떠올리다 이런 의문도 들었다. 도대체 기자, 경찰은 뭐길래.

많은 사연을 만났다 헤어진다. 어떤 사연은 술술 풀려서 손 흔들며 작별하고, 또 어떤 사연은 머리를 싸매봐도 답을 못 찾아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기도 한다. 모두가 전자 같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럴 리가 있다. 간혹 후자를 만나면 찡찡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최선이란 신념을 거꾸로 매달아 의심하고 싶어진다.

그럴 때마다 물구나무선 신념이 하는 말은 똑같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듣고 쓰고 말하는 것. 어떤 기사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응어리도 다 못 풀어주지만, 다음 기사에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밤늦도록 소리 없는 다짐을 하며 호프집 문을 나섰다. 

G1방송 원석진 기자